

**삼성전자 새로운 가로본능, 「가로보기 슬림DMB폰」 출시**

삼성 애니콜의 새로운 스타일의 가로본능이 슬림 DMB폰으로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가로본능 디자인

에 14.9mm의 슬림한 두께를 구현한 '가로보기 슬림DMB폰(모델명: SCH-B540)'을 SK텔레콤을 통해 출시한다고 밝혔다.

'Slim & H'라는 애칭이 붙은 이 제품은 현재 방영중인 광고 모델 이효리의 이니셜 'H'를 딴 것이기도 하다.

'가로보기 슬림DMB폰'은 휴대폰의 디자인 아이콘으로 자리잡은 가로본능의 새로운 모습으로 폴더를 가로로 돌려 볼 수 있어 TV 시청에 가장 적합해 최적의 DMB 시청환경을 제공한다.

이 제품은 '전자프로그램가이드(EPG;Electronic Program Guide)' 설정을 통해 현재 방송되고 있는 DMB 프로그램 리스트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특정 방송을 예약해 두면 알람으로 알려주어 보고 싶은 방송을 언제 어디서나 놓치지 않고 즐길 수 있다.

'가로보기 슬림DMB폰'은 회전형 카메라를 탑재해 셀프카메라 촬영이 가능하며, '자동 촬영 모드'를 설정하면 원하는 장면에서 손동작을 잠시 멈추기만 해도 자동으로 사진이 찍혀, 버튼을 누르는 움직임으로 인한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다.

**LG전자, 37·42인치 풀 HD LCD TV 출시**



LG전자가 풀 HD TV 시대를 열었다.

LG전자는 7월 26일 기존 100만 화소의 HD급(고화질) TV보다 화질이 2배 뛰어난 200만 화소의 풀 HD급(완전고화질) 37·42인치 LCD TV(37LB2DR, 42LB2DR)를 출시했다.

이로써 LG전자는 국내 처음으로 37·42·47·55인치의 풀 HD LCD TV 소라인업을 구축했다.

특히 30인치대 풀 HD TV는 국내 TV업계 처음이다. 화면 크기가 작을수록 200만 화소의 풀 HD 해상도를 구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풀 HD TV는 해상도가 1,920x1,080(200만 화소)이므로 기존 HD급(1,363x768, 100만 화소) 대비 2배, SD급(일반 화질) 대비 6배 이상 화질이 뛰어나다.

해상도가 높을수록 영상을 보다 미세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선명한 화질 구현이 가능하다.

풀 HD TV는 1,080개의 주사선으로 송출되는 방송 신호를 손실 없이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다.

**대우일렉, 42인치 LCD TV 첫 출시**

대우일렉은 42, 32인치 HD급 일체형 LCD TV 총 5개 모델(42" 2개, 32" 3개)을



일체형 출시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월드컵 특수를 맞아 100만원대의 PDP TV를 선보이며 폭발적인 판매고를 올렸던 대우일렉은 이번 신제품 출시를 통해 LCD TV 부문의 적극적인 판매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지이다.

대우일렉은 이를 위해 1년여의 개발 기간을 통해 최고의 화질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새로운 프리미엄 디자인을 디지털 TV 라인업 전반에 적용하여 일체감과 통일감을 부여함으로써 써머스(Summus) 브랜드의 가치를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먼저 고품택 "시네마 블랙" 컬러를 전면 배치하면서 화면부와 하단 스피커를 분리한 새로운 디자인을 통해 화면에 몰입감과 안정감을 최대화했다. 시각적으로 불필요한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LCD TV의 화면을 더욱 살려내는 절제미를 강조했다. 이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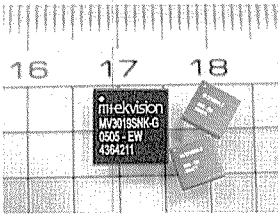
특히 각종 입력 소스에 따라 현재 상태를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화면부 하단에 아이콘 점등방식을 채용함으로써 사용편의성과 함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살린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동급 최고수준의 5,000:1의 명암비와 5조 4천억 컬러와 함께 6ms의 빠른 응답속도로 최고의 화질 구현은 물론 디지털 음성신호를 스피커로 출력하기까지의 복잡한 처리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DDX 음향엔진을 통해 생생한 디지털 원음을 손실 없이 재현하는 것도 장점이다.

**엠텍비전, 새로운 패키지 기술로 초소형 CCP 개발**

엠텍비전이 새로운 패키지 기술인 WLP를 적용해 개발한 초소



형 CCP. 기존 제품(왼쪽)에 비해 크기가 40% 이상 작다. 엠텍비전이 칩의 크기를 40% 가량 축소할 수 있는 패키지 기술을 개발, 카메라컨트롤프로세서(CCP)의 크기를 세계 최소형인 4.6×4.6mm까지 줄였다고 8월 7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웨이퍼 레벨 패키지(WLP) 기술은 패키지 재료로 사용하던 플라스틱 대신 감광성 절연물질을 웨이퍼 위의 각 칩에 입히고 배선 후 다시 절연물질을 덧씌워 간단히 패키징 공정을 마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기존의 반도체 조립에 쓰이던 플라스틱, 인쇄기판회로(PCB), 배선연결용 와이어 등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크기를 대폭 줄일 수 있다. 또, 기존에 별도로 진행되던 웨이퍼 가공과 패키지 작업을 동일 공정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제작 공정도 단순화할 수 있다. WLP 기술은 2004년에 처음 개발, 엠텍비전이 이번 제품 적용을 통해 처음으로 상용화에 성공했다.

엠텍비전은 이 기술을 CCP인 MV3019SNW에 적용해 6.2×7.2mm에 달하던 크기를 40% 이상 줄였다. CCP의 경우 휴대폰에 주로 적용되는 칩이어서 휴대폰 업체들은 슬림폰 개발에 유리한

초소형 CCP를 선호한다.

**팬택계열, 자동안면 인식폰 출시**



팬택계열이 모델 얼굴의 위치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동안면 인식단말기 '스카이 IM-R100'을 50만원대 가격에 선보였다. 이 제품은 200만화소 자동 회전 카메라를 탑재해 사진을 촬영할 때 모델의 얼굴이 항상 화면의 중앙에 오도록 카메라가 얼굴을 따라오는 기능이 있다. 카메라에 잡힌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사람 얼굴의 형태를 포착하면 얼굴이 중앙에 잡히도록 렌즈가 이동한다.

**소니, PSP 크기 무선인터넷 기기 '마이로' 내놔**

소니가 오는 9월, PSP 크기의 와이파이(Wi-Fi) 기반 개인 엔터테인먼트 기기 '마이로(mylo)'를 350달러에 북미 지역에 내놓는다고 레드헤링이 8월 8일 보도했다.



소니는 마이로란 이름이 '내 삶은 온라인(mylife online)'을 뜻하며 지와이어(Jiwire) 와이파이 서비스를 통해 미국 내 2만곳에서 온라인에 접속해 인터넷 서핑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구글토크, 야후메신저를 사용, e메일 교환과 인스턴트 메시징도 할 수 있다. 인터넷전화(VoIP) '스카이프'와 연계할 수 있어 스카이프에 가입한 마이로 고객은 다른 스카이프 가입자와 무료 통화도 할 수 있다.

소니는 마이로가 MPEG-4 코덱이 내장된 동영상 플레이어를 탑재했으며 MP3, ATRAC, WMA등 다양한 형식의 음악파일 재생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플레이스테이션포터블(PSP)과 비슷한 크기(크기는 123mm x 63mm x 23.9mm)인 마이로는 1기가바이트(GB)플래시메모리와 2.4인치 컬러 LCD를 갖췄다.

**크레신, 음색 조절 이어폰 출시**

크레신은 사용자 취향대로 음색을 조절할 수 있는 이어폰 'CS-EP800'을 출시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이 제품은 이어폰의 몸체 부분을 회전시켜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는데 이에 따라 저음과 고음 성향의 2가지 음색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16mm의 대형 유닛을 사용해 저음부터 고음까지 음향을 고르게 재생하고 8Hz~2만 7,000Hz까지 광대역의 음역을 재현한다고 크레신은 덧붙였다. 마그네슘으로 제작해 무게가 8g에 불과하며 산소분자를 포함하지 않은 무산소 동선(OFC) 등으로 이어폰 선이 쉽게 훼손되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 가격은 8만 9,000원이다.